



지난 20일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초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전북지사와 도정 현안 및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국가균형발전 · 자치분권 이뤄져야

靑 한병도 정무수석 등 전북도청 방문

송하진 지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 GM군산공장 등 조기 재가동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 균형 전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건의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나소영 자치분권비서관 등 7명의 정부팀이 지난 20일 전북도청과 전북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순회행사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도정 주요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속 추진, ▲GM군산공장 및 군산조선소 조

기 재가동,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도정 현안 법안 개정 지원, ▲균형발전이 전제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댐버리 행사 시 해외 참가자들의 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시설로 신속 추진, 군산 지역경제 회생과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GM군산공장 및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을 정부 주도로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촉구, 서남대 폐교이후 후속 대책으로 지난 4월 발표된 공공국립의료대학(원) 남원 설립이 도민들이 염원하

는 대로 신속히 추진되어 침체된 남원경제 회복은 물론 전북의 동부산업권과 전남, 경남 등 지리산권 지역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서 전향적 ·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송지사는 균형발전협의체 회장으로서 그동안 국회토론 등을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재정분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에서 시

작되며 균형발전을 전제로 하는 재정분권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조속히 확정 발표될 수 있도록 BH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5면 - 중고교 역사 보조교재 학교에 보급

7면 - 함열농공단지 기업투자유치 첫발

김승수표 청년건강검진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보건복지부, 적용방안 의결 내년부터 적용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건강검진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지난 민선6기 청년 · 대학생 관련 대표적인 공약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 · 의결하고 이를 내년 부터 적용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국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 등도 내년부터는 전주시청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비만과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폐결핵, 치아우식증 등을 2년에 1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봐왔는데 보건복지부도 그간 전주시 무료 청년건강검진사업에 대해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B형간염 2종과 간질환 3종,

신장질환 3종, 심혈관질환 4종, 요검사 2종, 흉부엑스레이 등 총15종의 무료건강검진을 전주시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상소견이 있는 검진자에 대해서는 수치가 높은 경우 세밀한 진료 및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전주시의 청년건강검진에 참여한 총 3,400명의 청년들 중 23.8%(인 811명)이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검사 설문평가에 참여한 790명 중 368명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시는 B형간염 항체음성자 중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B형간염 무료예방접종도 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젊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 실패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오히려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건복지부의 국가건강검진 확대 방침으로 전국의 모든 청년들이 전주시 청년들처럼 건강하게 미래의 꿈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지선 정당 · 후보자 선거비용 총액 269여억원”

전북선관위, 내역 공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지난 20일 공개했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도내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 총액은 269여억원이다.

도지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은 총 29억8,900여만 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5억9,700여만 원을 지출했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총 45억 3,000여만원이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9억600여만원이다.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지출총액(도지사선거 23억 3,800만 원, 교육감선거 33억1,200만 원)보다 증가했다.

전북선관위는 누구든지 10월 22일 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도 공개한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지난 9월 말부터 도 및 각 구 · 시 · 군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시 TF팀’을 편성해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www.namwon.go.kr

남원시
사랑의 1번지

시원 상쾌한 남원의 여름

지리산의 시원한 계곡과 돌레길, 한여름 밤의 아름다운 공연
삶의 여유와 힐링을 선물합니다.

밤사골계곡

관한루원

남원예촌

구룡폭포

남원창극

남원창극

남원창극 춘향만리